

월간

세계농업뉴스

제1호 (2000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머 리 말

WTO 체제에서 시장개방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세계 각국의 농업과 농정, 농산물무역 동향이 우리나라 농업에 점점 강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농업·농정 등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제공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에 관한 정보는 이용자의 요구에 충분히 대응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이 강한 중국, 일본, 대만 등 인접국가를 비롯하여, 세계 농정과 농산물 무역질서에 영향력이 큰 미국, EU, 그리고 국제기구 등을 중심으로 농업, 농정, 무역, 기타 현안 등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하여, 행정기관·연구자·생산자 등에게 제공하고, 동시에 세계 각국의 관련 홈페이지에 접속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하여 정책 입안, 국제동향 파악, 협상전략 수립, 농산물무역 확대, 농업경영 및 기업활동 개선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홈페이지에 「세계 농업정보」 사이트를 설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분류, 보완하여 매월 1회 「세계 농업뉴스」를, 또 분기별로는 세계 주요국가의 농업 및 농정에 관한 현안을 특집으로 한 「세계 농업정보」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여, 학문·연구·산업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이용을 바랍니다.

2000년 9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목 차

I.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급현황 3
2. 중국의 채소산업동향 9
3.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수출 전망 17
4. 미국의 농가구제대책 예산확충 21
5. 뉴질랜드의 임산업동향 24

II. 국제기구 논의동향

1. WTO 출범이후 국제적 무역분쟁 33
2.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 논의동향 38

III. 세계 농산물무역 정보

1.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동향-2000년 상반기- 47
2. 중국의 농산물 무역동향 56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급현황

1. 중국의 농업개황

중국의 국토면적은 약 960만km²로서 남북한 면적의 44배이고, 경지면적은 약 9,497만 ha로 이는 세계 총경지면적의 7%에 달하며 총인구는 1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인구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농촌인구는 약 8억 7천만 명으로 총인구의 약 70%에 달하며, 1998년 국내 총생산액(GDP) 7조 9,396억 원 중 농림수산업 생산액은 2조 4,517억 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액의 약 31%를 차지하고 있고, 농림수산업생산액은 다시 각각 농업 58%, 축산업 29%, 수산업 10%, 임업 3%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중국의 농정은 최근 시장경제적 요소의 도입과 농산물 유통의 현대화, 그리고 곡물 생산 확보 및 생산성 증대에 중점을 두고 있는 중이다.

최근 중국의 농산물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식품수요 측면에서 볼 때, 지난 20여 년간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소득증대에 따라 곡물류 중심의 식품소비에서 육류, 채소, 과일 등으로 다변화되는 등 소비 패턴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연간 400kg에도 못 미치는 1인당 평균 식량소비량과 1억 명 내외의 절대 빈곤인구가 있다. 또한 중국의 주요 식품별 연평균 1인당소비량은 한국과 일본에 아주 못 미치고 있으며 향후 중국의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른 축산, 과일, 채소류 등의 수요증대 및 소비 패턴의 다양화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아직도 식품에 대한 잠재적 수요는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1 한·중·일 농업지표 비교(1998)

구 분	한 국(1)	중 국(2)	일 본	(2)/(1)
국토면적(천km ²)	99	960	378	96.7
경지면적(천ha)	1,910	94,971	3,910	49.7
호당경지면적(ha)	1.3	0.4	1.4	0.3
총인구(백만명)(A)	46	1,248	126	27.1
농촌인구(B)	4	868	5	217
B/A(%)	8.7	69.5	3.9	-
경제활동인구(C)	23	742	67	32.3
농업취업인구(D)	2	508	3	254
D/C(%)	8.7	68.5	4.5	
농림수산업GDP비중(%)	6	31	2	2.9

자료 : 한국농림업주요통계(1999), 일본농림수산통계(2000), 중국통계연감(1999)

표 2 한·중·일 주요 식품의 연평균 소비량(1998, kg/인)

품 목	한 국(A)	중 국(B)	일 본	B/A
곡 류	154.3	249.3	100.6	1.62
채 소	150.0	108.9	118.8	0.73
과 일	49.2	14.9	57.0	0.30
육 류	28.1	15.5	42.6	0.55

자료 : 한국농림업주요통계(1999), 일본농림수산통계(2000), 중국통계연감(1999)

식품공급 측면에서는 빈번히 발생하는 자연재해, 경제개발 등으로 인한 비농업 부문의 토지수요 증가, 농업용 수자원의 만성적 부족 및 산림 및 초지 회복정책(退耕換林)의 시행으로 식부면적이 감소하고 있어 급격한 농산물 공급증대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구당 평균 경지면적이 0.4ha에 불과한 영세소농 구조로서 빠른 생산성 증대 및 경쟁력 증가에 어려움이 있다.

중국은 식량작물로서 쌀, 밀, 옥수수, 대두의 생산 비중이 높으며, 쌀과 옥수수는 주로 수출되어 왔으나 밀과 대두는 수입되어 왔다. 1978-98년간 연평균 곡물생산량은 2.63%씩 증가하였으며, 단위 수확량은 매년 2.93%씩 증가하였다. 즉 지금까지 중국의 곡물생산증가는 전적으로 생산기술진보에 따른 단위 증대에 의존해 왔다. 중국의 곡물 수출입은 연도별로 일관성이 없고 국내 생산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특징이 있다. 최근 좋은 기후로 인한 높은 수확률과 1995년 이후 곡물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는 새로운 농업정책(Grain Bag Policy)으로 1997/98년도는 순수출국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나 향후 인구 및 소득증가를 감안할 때 수요가 생산 증가를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이 일반적이다.

표 3 중국의 곡물생산과 수출입 추이(10,000톤)

연 도	생 산 량	수 입 량	수 출 량	순수입량	생산량대비 순수입비율(%)
1965	19,453	641	242	399	2.1
1970	23,996	536	212	324	1.4
1975	28,452	374	281	93	0.3
1978	30,477	883	188	695	2.3
1980	32,056	1,343	162	1,181	3.7
1985	37,911	600	932	-332	-0.9
1990	44,624	1,372	583	789	1.8
1995	46,662	2,081	214	1,867	4.0
1996	50,450	1,200	144	1,056	2.1
1997	49,417	705	859	-154	-0.3
1998	51,230	708	906	-198	-0.4

자료 : 중국 농업경제연구소장, KREI 발표자료(2000. 5. 22)

2. 주요 품목별 수급현황

최근 고품질 벼 재배면적은 증가하는 반면 밀과 옥수수는 식량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의 생산 의욕 약화, 고소득 경제작물 재배 선호 등에 기인하여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쌀의 경우는 우리나라와 인접한 동북 3성 및 만주지방을 중심으로 조생종 인디카 품종에서 고품질종인 자포니카 쌀로 생산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표 4 최근 중국의 주요 곡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

단위: 만톤

품목	생 산 량			수 출 량			수 입 량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쌀	19,510	20,074	19,871	26	94	375	76	33	24
밀	11,057	12,329	10,973	0	0	0	831	186	149
옥수수	12,747	10,431	13,295	16	661	469	44	0	25

자료 : 중국 통계연감 및 농업경제연구소장 KREI 발표자료

표 5 최근 중국의 유지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단위: 천톤

품 목	생 산 량			수 출 량			수 입 량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대 두	13,500	13,222	14,730	222	195	180	795	2,274	3,300
대두박	6,051	6,952	8,600	100	24	7	1,550	3,750	4,300
대두유	1,150	1,390	1,772	66	80	20	1,445	1,674	2,000

자료 : USDA-ERS, China Situation and Outlook Series, 1998

유지작물 중 대두는 최근 수요는 증가하나 생산이 감소추세에 있어 수입이 증가하고 있다. 대두의 생산 감소원인은 수익률 저하로 재배를 기피하고, 수입증가로 가격이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콩깻묵의 경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높고 국내수요가 많기 때문에 수요량의 1/3 가량이 수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은 축산물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동시에 소비국으로서 상대적으로 생산대비 교역규모는 미미한 수준이다. 중국은 돼지고기, 양고기, 계란의 세계 최대 생산국이며 가금육은 세계 제2위, 쇠고기는 제3위의 생산국이나 축산물의 대외교역량이 적은 이유는 정부의 육류 자급정책으로 인해 축산물 수입이 제한되어 왔기 때문이다. 돼지고기 생산은 정부의 생산장려정책(1985년 이후 시장가격화)과 소득증가로 1979년 1000만 톤 수준에서 1996년 이후 40백만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다. 축산물 소비측면에서는 돼지고기가 전체 동물성단백질 섭취 중 50%를 차지하는 최대 소비품목이고 그 다음은 계란(16.8%), 어류(15.8%), 가금육(11.7%), 쇠고기(3.3%), 양고기(2.3%) 등의 순이다.

중국이 세계 최대 축산물 생산국이나 막대한 수의 인구를 고려하면 1인당 축산물 소비를 통한 동물성 단백질 섭취량은 낮은 수준이다. 중국의 1인당 동물성 단백질 소비량은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등에 비해 매우 낮아 미국의 1/10, 일본의 1/7, 대만의 1/8, 한국의 1/5로 계측되어 향후 경제발전과 소득증대에 따라 축산물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USDA ERS, 1998).

현재 중국 정부는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와 수출시장을 겨냥해 과일류에 대한 생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중국의 WTO 가입으로 곡물 수입이 확대되면 기존의 곡물 재배면적이 경제작물인 과일류 재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국의 과일 생산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¹⁾.

1) 중국 내 과일생산 추이는 1980년 679만 톤에서 85년 1,164만 톤, 90년 1,874 만 톤, 98년 5,453만 톤으로 증가하였다.

표 6 최근 중국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입 동향

단위: 천톤

품 목	생 산 량			수 출 량			수 입 량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1996	1997	1998
돼지고기	40,375	42,500	44,000	192	150	90	2	3	3
쇠 고 기	4,946	5,400	5,800	79	60	50	3	3	7
양 고 기	2,400	2,600	2,900	8	8	8	3	3	3
가 금 육	10,746	11,500	12,500	410	435	430	850	900	850
계 란	312,640	336,000	360,000	715	957	1,110	3	5	5

자료 : USDA-ERS, China Situation and Outlook Series, 1998

주 : 계란의 수치단위는 백만개임.

표 7 과채류의 식부면적 및 생산량(1,000ha, 1,000톤)

연 도	채 소		과 일		사 과	감 굴	배	포 도	바나나
	식부면적	생산량	식부면적	생산량					
1980	3,163	-	1,783	6,792	2,363	712	1,466	110	61
1985	4,753	-	2,736	11,639	3,614	1,808	2,136	361	631
1990	6,338	-	5,179	18,744	4,319	4,854	2,352	858	1,455
1995	9,515	-	8,098	42,146	14,007	8,224	4,942	1,741	3,125
1998	12,293	-	8,535	54,528	19,480	8,590	7,275	2,358	3,518

자료 : 중국통계연감, 1999.

과일류 생산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1998년 기준으로 사과(37.7%), 감귤류(15.8%), 배(13.3%), 바나나(6.5%), 포도(4.3%)의 순이며, 한·중간 주요 경쟁과실은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귤 등이나, 현재까지 중국은 식물검역상 수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수입이 규제되어 왔다. 채소류 식부면적은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생산도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의 채소산업 동향

중국의 1999년 총경지면적 중 채소재배면적은 8%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재배면적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주 품목은 수박, 오이, 토마토, 양파, 마늘, 고추 등이며, 주산지는 산둥성, 광둥성, 하남성 등이다.

중국산 마늘과 양파의 수출은 주로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다. 마늘 수출량은 90년에 비해 98년에는 35% 증가하였고, 양파는 90년 대비 98년은 7.5배 증가했다. 최근 외국기업이 직접 중국에 대단위 채소기지를 형성하여 자본과 종자, 기술을 제공, 공동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일괄 구입·판매하는 형식을 취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중국의 고추생산량은 세계 전체의 40%를 넘어섰고, 주산지는 산둥, 운남, 하남, 사천, 호북, 강서, 안휘성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고추 품종은 익도산으로서 산둥성의 평도, 교주, 안구 등에서 생산된다.

마늘의 세계 생산량은 1,200만 톤 정도이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이 약 900만 톤으로 세계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등이 주산지이며, 수확시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월 하순에서 6월이다. 특히 산둥성 마늘은 한국산과 비슷하여 이 지역 마늘이 주로 우리나라로 수출되고 있다.

1. 중국의 채소산업 현황

중국은 토지가 넓고, 열대, 아열대, 온대기후를 포함하고 있고, 지형은 평원, 구릉, 산지, 고원 등 다양한 기후와 토양조건을 가지고 있어 모든 작물의 생산이 가능한 국가다. 경지면적에 차지하는 채소재배면적은 7.9%로서 식량

작물(73.1%), 유류작물(8.3%)에 이어 3위에 위치하고 있다.

채소재배면적은 90년 723만 7천ha에서 99년에는 1,477만 9천ha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품목별로 보면, 수박이 9.6%, 오이 6.8%, 토마토 5.1%, 양파 3.7%, 마늘 3.2%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산둥 지역이 10.8%, 광둥 9.0%, 하남 7.6% 순이다. 주요 품목 생산량 변화를 보면 90년 대비 99년 연평균 증가율은 수박 10.7%, 오이 9.9%, 토마토 9.7%, 양파 9.4% 순이다.

중국에서 생산한 마늘과 양파의 수출국으로는 일본, 한국, 싱가포르 등 동남아 지역이며, 마늘의 수출량은 90년에 11만 7천 톤에서 98년에는 15만 8천 톤으로 증가하고, 양파는 90년에 1만 8천 톤에서 98년에는 13만 5천 톤으로 급증하고 있는 추세이다.

2. 채소유통제도의 개선

채소는 중국농업 중 시장화 개혁이 가장 빠르고 가장 성공한 산업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채소시장은 매일 장을 서는 곳도 있고 몇 일에 한 번씩 장이 서는 곳도 있다. 농산물의 시장은 전국에 2만 6천 개에 이르고, 총교역액은 1조 7백억 원, 그 중 채소 교역액은 1천억 원에 이르고 있다.

채소 유통활성화를 위해 중국 농업부에서는 1995년 이래 전국 채소도매시장 정보망을 구축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매일 150여 개의 전국 주요 채소대형 도매시장의 교역정보를 수집발표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유통원활화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이미 채소유통에 대한 통제를 완전히 개방하였고, 채소유통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주체는 개별농민, 합작농민, 국영채소회사, 도시의 개별상인, 합자회사의 소매기업 등이 있고, 개인과 합작농민이 운송판매조직을 주로 하고 있다.

채소의 대외 무역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99년 채소수출은 220여만 톤으

로 그 수출가치는 약 15억 달러인데 수산물 다음의 제2의 수출농산품이다. 주 수출 지역은 일본, 홍콩, 소련, 동남아 국가 등이다. 과거 계획경제하에서 채소의 구매와 판매는 국유채소회사에서 경영을 책임졌고, 가격은 각 지방정부에서 결정했었다. 그러나 84년부터 광주, 무한 등의 일부 도시에서 채소 생산판매체제를 개혁하기 시작하여 다양한 경영을 시도했다. 정부는 가격 및 판매 등에 대한 것은 시장기능에 맡기고 있으며, 간섭하지 않고, 채소생산기술지도, 재배방법 및 가공기술지도만 하고 있다.

대규모 시장이 성 단위로 1~2개 정도 있으며, 여기서 채소의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고, 85년까지는 국영유통이 100%이었지만 92년부터 정부가 빠진 상태이고, 현재는 80%가 개인 또는 농민집단 스스로 유통을 담당하며, 앞으로 개인 및 농민집단에 맡긴다는 계획이다. 채소의 가격자료는 각 성별로 아침 10시에 TV로 방송되고 있고, 자료는 매일 내부자료로 전환하고 공개하지 않는다.

중국의 채소는 소규모 단지를 구성하여 상품생산기지를 형성하고 있다. 주요지역으로는 산둥, 상해, 절강, 강소, 광둥 등이며, 2만ha를 초과하는 기지가 60여 개가 있다. 최근에 외국기업이 직접 중국에 채소기지를 형성하고, 자본과 종자, 기술을 가져와 공동으로 채소를 재배하고 일괄 구입하여 일괄적으로 판매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수출은 일본, 대만, 한국, 홍콩, 동남아 지역에 하고 있다.

3. 주요 채소의 생산 및 수출입 동향

3.1. 고추 생산과 수출입

중국이 세계 고추생산량의 40%가 넘는 700만 톤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산지는 산둥, 운남, 하남, 사천, 호북, 강서, 안휘성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고추와 비슷한 품종은 익도산으로서 산둥성의 평도, 교주, 안구 등에서 생산된다.

중국으로부터 건조·분쇄하지 않은 고추가 1995년 4,653톤, 96년 4,965톤, 97년 3,960톤, 98년 5,288톤, 99년에는 6,200톤 수입되었다. 전량이 산둥성에서 수입되고 있어 산둥성 고추생산량이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1999년 산둥성의 고추 재배면적은 98년보다 증가하였으나, 8월 이후 비가 자주 내리고 일조 부족으로 주당 착과수 및 과장, 과폭이 적고, 색택이 떨어지는 등 전반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생산량은 약 2만 톤으로 작년 대비 20% 감소하였다.

중국의 고추 재배방법은 지금까지 대부분 직접 파종이었으나, 점차 육묘 후 정식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중국의 평당 주수는 40주로 우리나라의 12주에 비해 밀식 재배하고 있으며, 과육이 두껍고 색택은 7.5~8.5도로 우리나라의 3.5~4.5도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중국에서는 고추를 생육기간에 수확하지 않고, 서리가 내리기 1주일 전인 11월 초순에 일시에 수확한다. 수확 후 1주일 동안 쌓아 두면 수분함량이 24~26% 정도로 낮아지고, 30일이 지나면 출하 가능한 18%까지 낮아진다. 따

라서 중국의 건고추 성출하기는 수확 후 약 40일이 지난 12월 중순부터 시작된다.

수출업자들이 저장된 작년산 고추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선별 및 포장작업 과정 중에 감도가 40~50%나 발생하고 있다. 이는 작년산 고추의 작황이 좋지 않아 저장 중 희나리, 절단초, 규격미달 고추가 많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6월에서 MMA 물량으로 1,000톤이 수입되었고, 약 2천 톤은 연말에 입찰할 가능성이 있다.

3.2. 마늘 생산과 수출동향

마늘은 세계적으로 1,200만 톤 정도가 생산되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중 아시아가 1,000만 톤으로 83%, 그 중 중국이 약 900만 톤으로 세계의 75%를 생산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주로 하남성, 산둥성, 강소성 등에서 생산되며, 수확시기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5월 하순에서 6월사이이다. 그 중에서 산둥성 마늘이 한국산과 비슷하여 우리나라는 이 지역 마늘을 주로 수입하고 있는데, 98년산 마늘 생산이 증가하여 가격이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 영향으로 99년산 재배면적은 감소하였다.

1999년산이 출하되는 99년 후반기에는 국내 마늘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중국에서는 98년산 가격하락의 영향으로 99년산 재배면적이 감소하여 수확기가격(1999년 6~7월)이 98년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민간업체에서 고율 관세를 지불하고 수입할 가능성은 적다.

중국의 금년도 산동지역의 마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고, 작황부진으로 생산량은 전년보다 20~30% 감소한 20~22만 톤으로 추정된다. 거래부진으로 kg당 90전에 거래되던 수매가격이 수출기대감에 따라 10% 상승한 1원(한화 1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년산 공급과잉으로 건조마늘은 4~5천 톤, 냉동마늘은 2~3천 톤이 있으나, 현재 본격적인 가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향후 대 한국 수출 추이에 따라 가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UR 협정 발효 이후 한·중간의 현격한 가격 차이로 인해 시장접근물량을 초과하는 물량에 부과되는 고율 관세에도 불구하고, 신선마늘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중국으로부터의 신선마늘 수입은 96년 4,156톤에서 98년의 25,623톤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특히 냉동, 초산 마늘의 경우에는 낮은 관세가 부과되는 점을 이용하여 대량으로 수입되었으며, 99년에는 1996년에 비해 수입이 13배 이상 급증하였다.

이와 같이 마늘 수입 급증으로 수입마늘의 국내시장 점유율은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국내 농가판매가격과 도매시장가격은 크게 하락하였다. 농협중앙회는 중국산 마늘수입에 의해 국내 마늘산업이 큰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산업자원부에 마늘산업피해구제조치를 신청했다. 산업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는 마늘산업피해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피해조사를 실시했다. 산업피해조사신청에서 판정까지 5~6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산업피해구제 조사와 함께 피해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수입 냉동마늘과 초산조제 마늘에 대해 잠정적으로 285%의 긴급관세를 1999년 11월 18일부터 2000년 6월4일까지 200일 부과하기로 했다.

마늘산업피해구제 조치에 따라 6월 1일부터 마늘의 관세는 깎마늘의 경우, 종가세 436%, 종량세 2,180원/kg, 통마늘, 건조, 일시저장 마늘은 종전대로 종가세 376%, 종량세 1,880원/kg, 냉동 및 초산조제마늘은 기본관세 30%에 긴급관세 285%부과하여 종가세 315%, 종량세 1,887원/kg를 부과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이해 당사국인 중국으로부터 무역보복 조치가 이루어져 한·중 마늘협상이 2차례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2000년 7월 31일 오후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간 마늘교역에 관한 합의서에 정식 서명을 하게되었다. 이로써 지난 두 달간 끌어온 한·중간 마늘분쟁이 최종 타결되었으며, 합의서는 2000년 8월 2일부터 발효되었다.

그 결과 금년에는 MMA 물량 1만 1,895톤, 저율관세(30%)가 적용되는 중국산 냉동·초산마늘의 수입 쿼터를 2만 105톤으로 정했다. 양국은 특히 올해부터 3년 동안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수입 쿼터를 최소시장접근(MMA) 물량 증가분에 맞춰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산 냉동·초산조제 마늘의 수입 쿼터는 2001년 2만 1,190톤, 2002년 2만 2,267톤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물량 모두 민간에 의해 수입된다.

여기에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으로 들여오는 물량까지 더할 경우, 중국산 마늘 수입량은 올해 3만 2,000톤에서 2001년 3만 3,728톤, 2002년에는 3만 5,448톤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식품토축산진출구상회에 의하면 2000년 대 한국 수출마늘에 대한 쿼터 입찰을 8월말에 실시할 예정이다. 입찰에 참가할 자격은 대외경제무역협작부의 수출입경영권 비준업체로서 공상행정관리 부문에 등기된 업체이고, 외국인 투자기업은 중국외상투자기업협회에 가입한 업체, 등록된 자본은 인민폐 300만 원 이상으로 99년 영업수입이 100만 원 이상인 업체, 1998~99년에 대 한국 마늘 수출 평균실적이 150톤 이상인 업체 중에서 1998-99년에 대 한국 마늘 수출 총액이 일정 비율 이상인 선두기업 몇 개에 대해서는 협의 입찰 참가를 가능토록 하였다. 업체의 실적평가는 신선냉장 마늘에 대해서는 중국해관 수출통계를 기준으로 삼고 기타 품목에 대해서는 해관 신고서 및 외환 네고 대전을 근거로 한다.

3.3. 중국의 시설채소 동향2)

일본시설원예협회는 8월 12일 중국의 시설재배면적이 1998년 당시 93만 3,000ha로서, 일본의 10배 이상이 된다고 하였다. 일본에 대한 수출확대도 우려되어 중국의 동향이 주시된다. 이 협회에 의하면 중국의 시설재배면적은 80년에는 1만 ha이었지만 93년 이후 급증하여(중국 농업부 「중국농업50년」),

2) 일본농업신문, 2000년 8월 13일자

2000년에는 100만ha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품목은 토마토, 오이 등 과채류. 시설의 대부분은 북쪽과 좌우 측면은 흙이나 벽돌로 만들고, 남쪽 지붕과 측벽을 비닐 등으로 덮은 「중국식 온실」로서 현지에서는 「日光溫室」이라 있다. 야간의 거적피복, 토벽에 의한 열교환으로 겨울철 추운 山東省에서는 온실 밖과의 최저 온도차가 20도 이상이 유지된다고 한다. 건설비도 1ha당 2,800만원정도이어서 3년에 회수가 가능하다.

국고보조가 없기 때문에 비용이 짝 일광온실이 늘어나고 있다. 단지 다습하기 쉬워 피복재를 조석로 치고 걷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최근은 파이프 하우스가 대폭 늘어나고 있다. 특히 山東省의 도시근교에서는 대형화가 진행하여 점적관수, 細霧冷房도 시험 도입되고 있다고 한다. 멀칭 재배면적도 늘어나 82년 12만ha에서 98년에는 767만ha에 달하고 있다.

일본의 시설원예면적(유리온실, 비닐온실)은 99년에 5만 3,500ha, 이 밖에 비가림재배가 1만 3,600ha이기 때문에 중국은 일본의 10배 이상에 달한다. 일본시설원예협회의 해외산지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의 대일 양과수출이 98년도 이후 급증, 99년도의 수출량은 약 2만 9,000톤으로 일본 총수입량의 97%. 풋콩도 냉동을 중심으로 99년의 대일 수출이 3만 9,000톤, 동 45%로서 대만을 능가하고 있다. 양과는 山東省, 풋콩은 福建省을 중심으로 하는 연안 지역이 산지이다.

양 지역 모두 수출용은 생산에서 출하까지 국내소비용과는 다른 대응을 하고 있다. 양과는 일본의 상사나 종묘회사가 종자를 제공, 생산기술과 수출용 규격으로의 조제를 지도하고 있다. 풋콩도 대만기업이 수출용으로 생산하고 있다. 모두 일본인의 기호에 맞게 재배하여 특히 대일 수출확대를 기대하고 있다고 한다.

(김연중 yjkim@krei.re.kr 농업관측센터)

중국의 WTO 가입과 농산물수출 전망

중국의 WTO 가입이 중국의 농산물 수출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선 플러스 영향은 종래 중국의 수출에 대해서 차별적 조치를 강구하고 있던 국가가 중국의 WTO 가입에 의해 이것을 철폐하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마이너스 영향은 미·중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중국의 수출보조금 철폐이다.

중국 국내의 논의는 이 가운데 전자의 플러스 영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내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싼 축산물, 야채, 과일, 화훼 등에 대해서 WTO 가입 후 수출증가의 길이 즉시 열릴 것이라고 지적하는 논조를 자주 볼 수 있다.

그런데, 중국의 WTO 가입에 따른 차별적 조치의 철폐에 의해 어느 정도 수출이 증가할 것인가는 실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 국가와 품목이 어느 정도이며, 이러한 국가와 품목이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큰가에 따라서 규정되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유감스럽게 중국 정부 내에서 이렇다할 구체적인 작업을 시행하고 있는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현재 중국이 농산물 수출에서 받고 있는 차별적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공표한 자료를 본 적은 없지만 이미 일부 국가와 품목에 있어서 실제로 그러한 차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수출할 수 있던 것이 할 수 없게 된 것은 전체 농산물의 수출규모와 비교해서 크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 하면 중국 농산물의 주요 수출국은 일본, 한국, 홍콩(중국의 통관통계에서 홍콩과의 교역은 홍콩의 중국 복귀 후도 외국무역으로 취급), 동남아시아, 구 러시아 등 주변국가와 지역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국가들은 종래부터 중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를 하고 있으며, WTO 가입이 직접 무역조건의 변화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수출보조금의 폐지가 중국의 농산물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특히 옥수수의 경우가 명백하다. 다시 말해 중국의 옥수수시장은 낮은 비용의 동북지구의 산지가격조차 국제가격보다 현저하게 비싸다(표 1 참조).

표 1 곡물·대두·대두유의 내외가격차(1999. 12)

품목	지역	국내가격 (元/톤)	국제가격 (元/톤) (달러/톤)		가격차
			3801 2470	458 298	
쌀(자포니카)	동북	2002~2050	3801	458	-47~-46%
			2470	298	-19~-17%
쌀(인디카1기미)	양자강중하류	1580~1940	1868	225	-15~+4%
쌀(인디카2기미)	양자강중하류	1810~2120			-3~+13%
소맥(백소맥)	화북	1196~1420	764	92	+57~+86%
옥수수(황)	동북	921~1000	656	79	+40~+52%
	화북	1036~1200			+58~+83%
	상해	1300			+98%
대두	동북	1807	1436	173	+26%
	화북	2000~2200			+39~+53%
	상해	2300			+60%
대두유	화북	6980~7200	2930	353	+138~+146%
	상해	7050			+141%

자료 : 중국 국내가격은 「중국상보」 1999. 12. 23

주 : (1) 중국국내가격은 각지의 도매가격

(2) 자포니카쌀의 국제가격은 캘리포니아쌀(중립종)의 정미공장매도가격

(3) 인디카쌀의 국제가격은 타이 무역거래위원회의 쇤미혼입률 10% 정미가격

(4) 기타 국제가격은 시카고 가격

(5) 환율은 1달러=8.3元

(6) 이 표는 가격 경향을 보기 위해 작성한 것이며 엄밀한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1997~99년의 3년간 대량으로 수출되었다. 이것은 말할 것도 없이 수출보조금에 의해서 가능하게 된 것이다. 지난 3년간 옥수수 수출량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은 중국에 양적인 수출여력이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최근 국제가격의 저하에 대해서 중국의 제안가격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출보조금의 폐지라는 약속이 엄밀히 지켜지면 WTO 가입 후 중국이 옥수수를 수출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표 4 중국의 농산물수출입 동향(관세할당제 도입품목 및 대두)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쌀(정미)	수출	69	95	143	152	5	26	94	375	271
	수입	14	1	0	51	164	76	33	24	17
소맥	수출	0	0	0	0	2	0	0	0	0
	수입	1237	1058	642	718	1159	831	186	149	45
옥수수	수출	778	1034	1110	874	11	16	661	469	431
	수입	0	0	0	0	518	44	0	25	(25)
면화	수출	20.0	14.5	15.0	11.1	2.2	0.4	0.1	4.5	23.6
	수입	37.0	28.0	1.0	52.6	74.0	6.5	78.3	20.9	5.0
식용식물유	수출	10	7	14	27	50	47	86	31	10
	수입	61	42	24	163	353	264	286	206	208
중 대두유	수출	n.a.	n.a.	n.a.	n.a.	순수입	순수입	56	19	5
	수입	n.a.	n.a.	n.a.	n.a.	142	117	123	83	80
사탕	수출	34	167	185	95	48	67	38	44	37
	수입	101	110	45	155	295	125	78	51	42
대두	수출	111	66	37	83	38	19	19	17	20
	수입	0	12	10	5	29	111	279	320	432

자료 : 「중국통관통계」

주 : 1999년의 옥수수 수입은 1~10월합계

USTR은 중국의 수출보조금 폐지에 대해서 특별히 옥수수, 쌀, 면화 등이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중국의 쌀은 수송비를 고려해도 자포니카 쌀은 매우 경쟁력이 높고, 그리고 인디카쌀은 수출국에 따라서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출보조금이 지원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다. 또한 면화에 대해서도 1995~97년경은 수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국내가격의 저하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출경쟁력이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는 99년에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점에서 보면 비교적 공정한 무역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좋을 것이다(표 2 참조).

단지, 자포니카쌀을 제외하면, 인디카쌀도 면화도 중국 국내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가격차가 적기 때문에 소액의 수출보조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경쟁력이 대폭으로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까지 유보하고 있던 수출보조금을 지급하는 권리를 포기하는 것의 의미는 의외로 클지도 모른다.

요약하면 중국의 WTO 가입 영향은 농산물 수입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농산물 수출에 대해서도 불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까. 중국 농업은 향후 WTO 가입의 불이익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구조의 조정이나 비용절감, 품질향상 등에 필사적으로 노력할 것이므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농업이 경쟁력을 회복하여 다시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시나리오를 그릴 수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WTO에 가입하는 것만으로 중국의 농산물수출이 늘어날 것이라는 것과 같은 중국 국내에 적지 않은 견해는 국제적인 농산물무역의 현실에 비추어 지나치게 순수한 견해에 지나지 않는다.

(자료 : 池上彰英³⁾, “중국의 WTO 가입과 농업정책의 과제”
「國際農林業協力」 第23卷 第1號(國際農林業協力協會, 2000. 4)에서)

3) 국제농림수산업연구센터 주임연구원

미국의 농가구제대책 예산확충

미국은 농산물가격의 하락 등에 의하여 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받고 있는 농가를 구제하기 위하여, 98년에 총액 60억 달러, 99년에 총액 87억 달러의 농가 구제대책을 실시하였다. 2000년에도 2000년산 생산량이 미확정 단계이고 가격이 계속해서 불안정할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6월 20일에 성립한 '농가위험보호법'에서는 농가보험제도를 개선하면서 총액 71억 달러의 농가 구제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1. 농가구제대책

구제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2000년도 내에 실시되는 시장손실지불(직접지불에 추가)에 54.7억 달러, 2001년도 내로 실시되는 유지종자생산자에게 5.0억 달러 지불, 야채·과실 생산자에게 2.0억 달러 지불 등이다.

또 농업보험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정부보조율 인상, 보험운용의 적정관리에 관련된 비용 등으로서 향후 5년간에 총액 82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현재 심의중인 2001년도 세출법안에도 재해보상으로 약 9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다(표 1).

2. 융자단가

현재와 같은 가격 불안정시 생산자는 수확물을 그대로 매각하면 큰 손실을 입지만 융자단가(loan rate)에 근거한 융자를 받음으로써 일정한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의 현물가격은 가격수지수준에 있는 융자단가를 대폭 하회

하여 추이하고 있다. 옥수수를 예로 들면 8월 15일 현재 부셸당 전국 시장가격은 144센트인데 대해 전국 평균 목표가격은 189센트이다.

생산자는 수확한 옥수수를 담보로 하여 상품신용공사(CCC)에서 부셸당 189센트의 융자(상환기간은 최장 9개월)를 받고, 그 상환 시에 시장가격이 융자단가를 밑도는 경우, 그 시점에서 시장가격인 郡공시가격으로 상환할 수 있다.

표 1 농가구제대책의 개요

농업위험보호법	
○ 2000년도내(2000. 9. 30까지) 지불	(약 55억달러)
- 시장손실지불(직접지불에 가산)	54.7억달러
○ 2001년도내(2000. 10. 1~2001. 9. 30)	(약 16억달러)
(주요 내용)	
- 유지종자 생산자에 대한 지불	5.0억 달러
- 야채·과실 생산자에 대한 지불	2.0억 달러
- 낙화생 및 엽연초 생산자에 대한 지불	3.9억 달러
- 면화 생산자 등에 대한 지불	3.0억 달러
- 농지보전관계 지불	0.5억 달러
소 계	약 71억 달러
2001년도 세출법안(현재심의중)	
- 재해보상	약 9억 달러
합 계	약 80억 달러

즉, 생산자는 189센트로 융자를 받아서 144센트로 상환하며, 시장에서 현물을 매각할 수 있다. 또한 융자단가에 의한 융자를 받을 권리를 가지는 생산자는 그 권리포기를 조건으로 융자단가와 시장가격의 차액을 직접 수취할 수 있다(LDP, Loan Deficiency Payment). LDP의 이용은 98년도 이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소맥·대두·옥수수의 LDP의 지출총액은 23억 204만 달러이었다.

98년도에는 전년도 이상으로 가격이 불안정하였기 때문에 지불단가, 적용수량 모두 증가하여 3품목의 지불총액은 49억 936만 달러에 달하고 있다. 생산량에 차지하는 적용비율은 소맥이 83%, 대두가 88%, 옥수수가 77%이다.

(자료 : [http : //www.kanbou.maff.go.jp](http://www.kanbou.maff.go.jp)에서)

뉴질랜드의 임산업동향

뉴질랜드는 세계적인 낙농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세계적인 임업국이기도 하다. 특히 열대임업국가나 캐나다와 같은 전통의 임업국가가 광활한 국토와 천연의 산림자원에 의한 목재생산국이 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비교적 좁은 국토에서 인공적으로 조림하여 세계적으로 주요한 목재수출국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인공조림을 통하여 자원을 조성하는 국가에서는 뉴질랜드의 임업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자연환경 및 국토이용

뉴질랜드는 남태평양 상에 남위 34도에서 48도에 걸쳐 두 개의 큰 섬인 북섬과 남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면적은 약 27,000천ha로서 우리나라 전체 국토의 약 1.2배 정도가 된다. 기후는 온대해양성기후로서 연중 비교적 온난한 기온을 유지하고 있다. 연평균 강우량은 1,200mm로서 한국과 거의 비슷하나 우리와는 달리 연중 고르게 비가 온다.

지질학적으로는 지령이 약 6억 년으로 한국의 46억 년에 비해 매우 어린 편으로 토양이 노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옥한 토양이 많아 수목이 성장하기에 적합한 토양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토이용은 목축을 포함한 농경지가 13.9백만ha로 가장 많아서 약 51%에 달하고 천연림이 6.4백만ha로 24%에 달하며 인공림이 1.7백만ha로 전체국토의 약 6%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산림면적은 국토의 약 30%에 불과하므로 면적으로는 산림국이라고 할 수 없다.

2. 산림면적 및 축적

뉴질랜드의 산림 면적은 1998년 당시 1,679,000ha로서 1997년의 1,630,000ha에 비해 약간 증가하였다. 1998년에 조림된 면적은 63,700ha이고 재조림된 면적과 재조림을 기다리는 면적은 각각 29,700ha와 27,800ha이다.

뉴질랜드의 임목축적은 1998년 당시 338,000천m³이고 ha당 평균 축적은 201m³으로 세계 최고 수준이다. 뉴질랜드는 미국으로부터 라디에타소나무를 도입하여 수십 년간의 육종과정을 통하여 침엽수로서는 세계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나무로 만드는 데 성공하였다. 이것은 뉴질랜드가 세계적 임업국가로 성장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세계 각국의 침엽수 연간 성장량을 보면 뉴질랜드가 연간 ha당 25m³에 이르러 세계적인 임업국인 미국과 캐나다에 비해 약 2배에서 4배 정도가 빠르며 최근에 인공조림에 성공한 칠레에 비해서도 약 20% 정도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조림한 지 30년 되는 라디에타소나무는 수고가 약 35m에 이르고 흉고직경은 35m에서 50m에 이르며 총 재적량은 2.4m³에 이르는 등 엄청나게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 이처럼 라디에타소나무가 빨리 자라기 때문에 수종별 조림면적에 있어서 전체 조림면적의 90% 이상을 라디에타소나무로 조림하였고 나머지 면적에는 Douglas fir나 다른 수종으로 조림하였다.

라디에타소나무는 미국의 캘리포니아주가 원산지로서 미국에서는 성장이 별로 빠르지 않아서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1850년대에 뉴질랜드에 처음 식재된 후에 성장이 빠르고 채종과 양묘가 쉬워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특히 라디에타소나무가 용재로서 가치가 인정되면서 뉴질랜드는 이를 조림장려수종으로 선정하여 대규모의 조림계획을 세웠으며 육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

였다. 특히 1930년대에 경제공황으로 인해 실업자가 대규모로 발생하면서 이들을 동원하여 Kaingaroa 지역에 대규모의 인공조림을 시작하였는데 이 때 조림한 목재들로 국내수요를 충족시키고 해외에 수출하기 시작하였다.

라디에타소나무는 건축재와 가구재, 합판재까지 다양한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서 성장이 빠르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즉, 수종의 우수성을 개발하기 위해서 꾸준히 육종사업을 추진하여 왔고 이에 적절한 경영방법을 찾아 왔으며 수요창출을 위해 목재이용법을 개발하여 왔기 때문에 생산에서 소비까지 별 문제가 없었다.

3. 조림 및 경영

뉴질랜드에서 재조림을 제외한 새로운 조림내용을 보면 임업국으로 발전한 역사를 알 수 있다. 1960년대부터 새로운 조림이 대대적으로 시작되었는데 이는 30년에 조림한 나무들을 수확하면서 목재수출이 급격히 증가한데 반해 낙농산물은 수입국의 수요감소로 인해 수출이 극도로 부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수출확대정책의 일환으로 목재산업을 확대하기 위해 조림을 장려하기 시작하여 85년 정도까지 조림량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그 후 새롭게 조림되는 면적은 몇 년 동안 감소하였으나 90년 초부터 다시 조림량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것은 91년부터 국제목재시장에서 목재가격이 상승하면서 임업이 목축업보다 수익성이 높다고 인식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수많은 목장지를 다시 산림지역으로 환원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최근에는 목장지의 침식 등을 방지하고 소득도 높이며 친자연적인 농림업의 경영을 위해 목축업과 임업을 동시에 하는 혼농림업(Agroforestry)을 시범하기 위해 조림을 하는 예도 많아졌다.

뉴질랜드는 나무가 성장하기에 매우 좋은 기후와 토질을 가지고 있다. 더구나 대표적인 조림수종인 라디에타소나무는 생장휴지기가 없고 겨울에도

온도만 적당하게 유지되면 계속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침엽수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빨리 성장하는 나무가 되었다.

그러나 뉴질랜드가 산림국으로 성장하기에는 경영에도 남다른 면이 있었다. 뉴질랜드에서는 라디에타소나무를 ha당 900본을 심어서 7년생과 10년생이 될 때에 간벌을 해 주고 용도에 따라 ha당 200에서 400본을 남긴다. 또한 옹이가 없는 우량 제재목을 생산하기 위해서 대부분의 산림에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러한 산림경영방식을 변형시키고 있는데 이는 생산비용을 절감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즉, 과거에는 가지치기와 간벌을 하여 양질의 목재를 생산하는 방향으로 경영을 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경영하는 회사에 따라서 가지치기나 간벌을 전혀 하지 않고 경영하는 방식이 1997년의 23%에서 현재 30% 정도로 증가한 것을 통해 볼 수 있다.

4. 목재생산과 임산물 수출

뉴질랜드의 목재생산은 주로 인공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1990년대 전에는 천연림에서도 일부 벌채가 되었으나 천연림보존정책으로 1995년부터는 천연림에서 벌채량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인공림에서 벌채되는 목재는 주로 경제적 가치가 높은 제재목이 중심으로 그 비중이 1994년부터 점차 커지고 있다. 그 외에 펄프재와 소경재가 생산되고 있다. 생산된 목재는 주로 뉴질랜드에서 가공되는데 일부는 원목 형태로 수출되고 있다. 전체 벌채량 16.4백만^m³ 중에 약 5.5백만^m³은 원목 상태로 수출하고 제재목용으로 약 6.3백만^m³이 이용되고 펄프산업으로 4.2백만^m³이 나가며 나머지는 칩이나 원주목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주요 임산물 수출국인 뉴질랜드는 세계 최대의 침엽수재 수출국의 하나이다. 뉴질랜드 내에서도 목재는 가장 중요한 수출품목의 하나로 국가경제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원목을 비롯한 주요 목제품은 생산량의 많은 부분을 수출하고 있는데 대체로 생산량의 30%에서 약 70%정도까지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목은 생산량의 30%인 4,794천m³을 수출하고 있고 제재목은 생산량의 39% 정도를 보드류는 약 42%에서 69%정도까지 수출하고 있으며 합판은 생산량의 53%를 수출하고 있고 펄프류도 41%에서 53% 정도를 수출하고 있으며 신문용지를 포함한 제지류는 생산량의 45%에서 65% 정도를 수출하고 있다.

목재류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제재목으로서 약 5.4억NZ\$를 수출하고 있고, 그 다음은 원목으로서 약 4.3억NZ\$를 수출하고 있다. 한편 펄프나 신문용지의 수출액도 상당한데 약 4.3억NZ\$와 3.7억NZ\$를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 목제품의 주요 수출 대상국은 아시아에 있는 한국을 비롯해서 일본, 대만과 홍콩 그리고 타이완 등이 주요 대상국들이고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등에도 수출하고 있다. 수출 대상국별로 수출품목을 보면 한국에는 주로 원목 상태로 수출을 하는 반면에 미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제재목을 중심으로 가공된 제품을 수출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는 원목이나 가공품이 고루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임산업 동향

뉴질랜드는 임업의 발달과 함께 임산업도 발달하였다. 임산업으로는 제재소가 약 250여 개가 있고 8개의 펄프 및 제지공장, 5개의 합판공장, 8개의 단판공장, 5개의 섬유보드공장, 3개의 파티클보드공장 등이 있다.

펄프의 생산량은 1999년에 약 1,300천 톤으로서 기계펄프와 화학펄프가 거의 같은 비중을 이루고 있다. 펄프생산량은 84년까지는 약 1,100톤 정도에 머물고 있다가 94년부터 1,300톤 이상을 생산하기에 이르렀다. 제지류의 생산량은 1999년에 약 800천 톤으로 전년도에 비해 약간의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1980년대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제재목의 생산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재목의 생산은 99년에 약 3,200천m³ 정도에 도달했는데 이는 89년의 1,800천m³에 비하면 월등히 증가한 물량이다. 보드류는 합판과 파티클보드, 섬유질보드 등이 있으며 MDF 와 같은 섬유질보드의 생산량이 월등히 많다.

뉴질랜드는 우리가 가장 본받아야 할 임업국이라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임업국인 독일은 오랜 세월 산림을 가꾸어 왔기 때문에 지금의 임업국이 될 수 있었고, 미국이나 캐나다는 광활한 토지에 엄청난 천연림이 있기에 가능했고,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는 나무가 빨리 자라는 열대지역의 원시림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임업국이 될 수가 있었다.

그러나 뉴질랜드는 원래 있던 원시림을 제거하고 초지를 조성하여 세계적인 목축국가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산림을 조성할 것으로 예측하기 힘들었다. 그러나 초지조성을 위한 과도한 벌채로 향후 목재자원의 고갈을 염려하여 빨리 자라고 용도가 다양한 용재용 수종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또 부단한 노력 끝에 라디에타소나무를 세계적인 침엽수로 만들었으며, 이것이 바탕이 되어 세계적인 임업국으로 발돋움하게 되었다. 결국 임업은 뉴질랜드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가장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우리나라도 뉴질랜드에 뒤지지 않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비록 미국이나 캐나다 그리고 열대지역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노력여하에 따라서는 독일이나 뉴질랜드를 능가할 수 있는 임업국이 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한 번 뉴질랜드가 걸어 온 길을 살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뉴질랜드에 못지않는 세계적인 임업국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만들
어야 할 것이다.

(석현덕 hdseok@krei.re.kr 산림정책연구실)

WTO 출범 이후 국제적 무역분쟁 동향

1. WTO 체제의 분쟁해결 절차

UR 협상 결과에 따라 1995년 1월부터 출범한 WTO 체제는 이전의 GATT 체제와 달리 공산품뿐만 아니라 농산물, 섬유, 서비스, 지적재산권 등 새로운 분야를 국제무역 규범의 틀 안에 포함시켰으며, 구체적인 분야별 국제법적 협정문을 통해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개별국가의 무역제한조치를 억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WTO 협정문 자체가 여러 국가 간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불명확한 부분(grey area)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국제무역의 증가 및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국제 교역의 출현으로 인해 무역거래를 둘러싼 국가 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WTO 체제에서 회원국의 제소로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일반이사회 산하의 분쟁해결기구(Dispute Settlement Body : DSB)가 지난 UR 협상당시 회원국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분쟁해결 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Dispute Settlement Understanding DSU)에 입각하여 분쟁절차를 진행한다.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접수된 무역분쟁은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해결을 모색한다. 우선 제소국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양자협의를 시작하고 양자협의 요청 후 60일 이내에 양자 합의를 유도한다. 만일 양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소국은 패널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분쟁해결기구에 패널 설치를 요구함으로써 해당 분쟁에 관한 공식적인 패널을 설치하여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최장 9개월까지 이루어지는 패널절차를 진행한 후 무역분쟁에 관한 최종 보고서를 채택한다. 그러나 만약

분쟁당사국들 중 한 개국 이상이 패널에서 채택된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상소기구(Appellate Body)에 상소할 수 있다. 상소심이 진행되면 상소기구는 90일 이내에 상소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원국에 통보해야 한다. 한편 원칙적으로 분쟁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분쟁해결기구에 의해 최종 패널 보고서나 상소보고서의 채택까지 걸리는 기간은 상소가 없는 경우는 9개월, 상소가 있는 경우는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이러한 일련의 분쟁해결 절차를 통해 채택된 최종 패널보고서나 상소기구 보고서의 권고 및 결정 내용에 따라 분쟁해결기구는 패소국에게 분쟁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나 조치를 수정하도록 통보한다. 특히 패소국은 패널 혹은 상소기구의 보고서가 채택된 후 30일 이내에 개최되는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보고서의 권고에 따른 자국의 의무 이행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한편 합리적인 이행기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패소국이 제대로 WTO 분쟁해결기구가 채택한 권고나 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패소국이 보상을 하거나 승소국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다. WTO 협정문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제재조치를 허용하고 있다는 점이 종래의 GATT 체제에 비해 WTO 체제가 더욱 강력한 분쟁해결체제를 갖추었다고 평가받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2. WTO 출범 이후 무역분쟁의 동향과 유형

WTO 체제가 GATT 체제에 비해 분쟁해결절차의 제도화 및 판정결과에 대한 구속력이 강화됨에 따라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도국들도 쌍무적 분쟁해결 방식보다는 WTO 분쟁해결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⁴⁾. 이에

4) WTO 출범 이후 2000년 6월 15일까지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된 무역분쟁은 총 202건으로 미국, 캐나다, EU, 일본 등이 139건을 제소하는 등 선진국간 분쟁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최근 개도국들의 WTO 제소비율이 지속 증가하고

따라 WTO 체제 5년간(1995~2000. 6)의 통상마찰 총 건수(202건)가 GATT 체제 47년간(1947~1994)의 통상마찰건수(195건)보다 많은 실정이다. 최근 발생하고 있는 무역분쟁의 특징은 우선 종전의 보조금 혹은 수입수량제한 등 직접적인 무역장벽 분야에 대한 이해당사국간 무역마찰보다는 위생, 검역, 지적재산권, 투자제한조치 등 제도 및 규범에 대한 분쟁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다. 또한 WTO 출범 이후 개도국의 WTO 분쟁해결제도 활용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개도국들의 제소비율이 GATT 체제에서는 전체 제소건수의 10% 정도에 불과했으나 WTO 체제에서는 25%에 달하고 있다.

표 1 GATT 체제와 WTO 체제의 통상마찰 건수 비교

구 분	GATT체제 (1947~1994)	WTO체제 (1995~2000.6)
총분쟁건수	195건	202건
연간평균건수	4.1건	40.4건

WTO 회원국 중에서 다자간 무역규범을 적극 이용하는 국가는 미국, EU,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들로 지금까지 전체 분쟁의 68%를 이들 4개국이 주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WTO 분쟁해결기구(DSB)에 제소된 202건 중 65건을 제소함으로써 137개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EU(51건), 캐나다(15건), 인도(9건), 일본(8건) 등의 순이다. 한편 다른 나라가 미국을 WTO에 제소한 경우도 44건에 달함으로써 피소측면에서도 미국이 1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EU(28건), 인도(13건), 일본과 아르헨티나(13건), 한국과 브라질(11건) 등의 순이다. 우리나라가 제소를 당한 11건 중 6건은 미국으로부터이며, 나머지는 EU의 3건, 캐나다와 오스트레일리아 각각 1건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4건의 제소를 미국에 취한 바 있다.

있으며, 분야별로는 위생 및 검역, 농산물,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표 2 미국이 관련된 WTO 통상마찰 건수

구 분	미국이 타국 제소	타국이 미국 제소
총분쟁 건수(A)	65건	44건
미국의 패소건수(B)	5건	11건
미국의 패소율(B/A)	8%	25%

표 3 연도별 분쟁건수 및 해결방식

구분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년 1-6월	합계
	제 소		25	39	47	44	30	
양자 합의		9	12	12	1	0	0	34
패널 또는 상소기구 결정		8	18	16	10	6	0	58
양자협의를 및 패널 진행/중지		8	9	19	33	24	17	110

지금까지 빈번히 발생한 무역분쟁을 분야별로 구분해 보면, 우선 최근 들어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SPS), 그리고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분쟁이 증가하면서 총 26건에 달하고 있다. 또한 WTO 출범으로 사실상 최초로 다자간 무역규범의 규율하에 놓이게 된 농산물 분야가 25건의 분쟁건수를 보임으로써 국제 무역의 새로운 현안으로 떠올랐으며, 이는 농산물 분야가 수출입국을 막론하고 정치 및 사회적으로 매우 민감한 분야로서 상호 양보하기 어려운 분야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분쟁이 99년까지 21건에서 금년에 들어와 2건이 추가 제소됨으로써 23건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개도국에게 유예되어 온 지적재산권협정(TRIPs)이 금년부터 개도국에 적용됨으로써 향후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무역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외에도 반덤핑(18건), 무역관련투자조치(TRIMs), 섬유(13건), 서비스(9건) 관련 무역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2000년 6월까지 WTO 분쟁해결기구에 접수된 총 202건의 분쟁 가운데 45%인 92건이 양자협의 혹은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최종 보고서 채택 등으로 종결된 바 있으며 나머지는 대부분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들이다. 이중 양자협의로 종결된 경우는 34건에 불과한 반면 98년부터는 패널 및 상소기구에 회부되어 심의·결정되는 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임정빈 jeongbi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OECD 농업환경정책위 합동작업반 논의동향

2000년 7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제12차 OECD 농업·환경정책위원회 합동작업반(JWP)회의가 OECD 본부(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다. 주요 논의사항은 농업환경지표의 작업계획, 농업환경정책의 생산 및 무역효과, 합동작업반의 위임(mandate) 연장 등이다. 농업환경지표의 작업은 지표가 갖는 정책 측면의 장점이 강조되면서 계속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농업환경정책과 관련된 보고서들에 대해 회원국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다음 회의에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합동작업반의 위임 연장에 대해 일부 회원국은 작업내용과 결과에 불만을 제기했으며, 이에 따라 회원국의 의견을 더 수렴한 후 농업위원회와 환경위원회 그리고 다음 JWP 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1. 농업환경지표(AEIs)의 작업계획

1993년부터 활동하기 시작한 OECD/JWP는 회원국 사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농업정책과 방식, 복잡한 생태계 조건에서 농업활동과 환경 그리고 정책개입의 연계를 단순하고 명확하며 종합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방편으로 AEIs를 개발하고 있다. AEIs는 농업이나 농업정책과 연계해 환경의 상태나 변화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의 효율을 관측하고 평가하며 환경조건의 변화에 대응하도록 돕는 한 수단이 된다. JWP는 분야별로 13개 AEIs를 설정해 본격적으로 이를 개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회원국들은 JWP의 작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먼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개발되고 있는 지표들을 통한 회원국 사이의 비교가 어렵고 공동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 곧 정책연관

(policy relevance) 정도가 낮기 때문에 JWP의 추가작업에 의문을 제기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비롯해 EU, 일본, 스위스, 노르웨이 등은 지표가 유용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OECD 차원의 지표개발이 회원국별 지표개발을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정책효율과 농업-환경 연계에 관한 이해를 높인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과학적인 접근방식에 의해 지표를 계속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논의 끝에 JWP는 대상지표의 엄격한 기준(criteria)을 설정하면서 지표개발 작업을 지속하며, 정책연관과 실현가능성 및 국제환경협약(MEAs)의 기준 등을 고려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서면의견과 MEAs 및 관련 NGOs로부터 의견 수렴 등을 통해 개발대상 지표를 제시하고 2000년 12월에 열리는 제13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약속했다.

2. 농업환경정책과 관련한 보고서 검토

2.1. 농업환경정책조치의 생산효과[COM/AGR/CA/ENV/EPOC(2000)52]

이 보고서는 농업환경정책(agri-environmental policies)의 무역효과와 무역왜곡, 농업 경쟁력과 기준의 조화, 무역왜곡(trade distortion)을 가장 적게 하는 농업환경정책의 기준 설정 등에 대해 논하고 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내용은 농업환경정책이 농업생산과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데, 세계후생(global welfare)에 미치는 그 영향에 따라 무역왜곡을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보고서의 주장에 대해 EU, 독일, 영국, 덴마크 등은 JWP가 무역왜곡이란 WTO 용어의 개념을 해석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서 보고서의 발간에 반대했다. 우리나라는 세계후생의 개념 정의와 측정이 용이하지 않고 불확실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고 노르

웨이, 네덜란드,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았다.

반면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 등은 기본적으로 보고서의 구성과 목적에 지지를 나타내고, 농업환경정책 조치가 다른 나라의 후생과 무역자유화의 기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OECD의 논의가 WTO 협상에 이바지한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보고서 및 연구가 그 위임사항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논의 끝에 사무국은 9월 중순까지 제출되는 회원국들의 서면의견을 바탕으로 이 보고서의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하고 제13차 회의(12월)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2.2. 모범농업 및 환경정책실시를 위한 최적 이행계획 수립에 관한 정책결정체계[COM/AGR/CA/ENV/EPOC(2000)56]

이 보고서는 최적의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의사결정체계에 관해 다루고 있다. 환경정책을 평가하기 위한 일반적인 기준들을 제시하고, 정책수단, 개입 목표, 정책대상, 규정 지역 등 정책수립 변수들에 관해 소개한다. 또한 농업환경정책의 수립과 이행을 위한 모범과정규약(code of good process)을 구성하는 기준 목록을 제시하는데, 목표에 대한 맞춤(tailoring), 투명성, 무역왜곡의 최소화 등이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가 농업환경정책 조치의 효율적인 도입과 이행에 관한 기준을 잘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러한 기준의 정치적 수용가능성과 NGOs의 역할, 정책평가 절차 등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WTO 무역분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책의 이행 기준을 따라야 한다는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환경영향 평가자료 및 정보의 부족, 지역별 환경특성의 다양함, 생태계의 불확실성 등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2.3. 농업과 지속 가능한 개발[COM/AGR/CA/ENV/EPOC(99)85/REV2]

이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의 차원에서 농업 관련 자원의 수요와 농업의 기능에 관해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농업활동과 관련해 비식량 상품(non-food commodities)과 비상품 산출물(non-commodity outputs)을 언급하면서 농업의 여러 기능에 관해 소개한다. 산업자본과 자연자본으로 구성된 자원의 공급능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끝으로 미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capacity) 유지,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토지의 능력 유지, 농지와 연계된 문화특성의 보전, 사회경제적 개발에 이바지하는 농업의 능력 유지 등 농업의 지속가능성 목표를 제시한다.

이 보고서에 대해 많은 회원국들은 내용이 방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에 여러 측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관한 내용과 동물복지(animal welfare)와 관련된 부분을 삭제하면서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U, 덴마크, 일본 등은 지속 가능한 농업에 관해 논의하는 다른 국제기구의 논의도 이 보고서가 감안해야 하며 정책 차원의 접근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지속 가능한 농업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견주어 보고서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특히 결론부분이 본문과 일관성을 나타내도록 보완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서면의견을 받아 수정·보완하고 이를 배포해 제13차 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2.4. 농업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COM/AGR/CA/ENV/EPOC(2000)50]

이 보고서는 농업과 환경에 관한 JWP 작업의 종합보고서이다. 농업 및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무역자유화의 환경영향에 대해 분석한다. 농업의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정책과 시장이 갖는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이를 위한 세부 정책 수단과 지침을 밝힌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 보고서의 내용과 구성에 대체로 공감을 표시했으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몇 가지 개념과 이론에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미국은 참조수준(reference level : 환경이익과 손실을 나누는 선)이 개념에 불과하며 적용하기 어려움을 지적했다. 또 농업생산과 환경간의 결합(jointness)에 대해 경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농업의 환경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염자부담원칙(PPP)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 BPP)도 본문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3. JWP 위임(mandate) 연장

사무국은 2001년 1월로 만료되는 현재의 JWP의 위임을 3년 연장하는 안을 이번 회의에 제시했다. 많은 회원국들은 이러한 연장안에 지지를 나타냈다. 그러나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은 그동안 진행돼 온 JWP 작업과 결과에 불만을 나타내고 더욱 투명한 작업내용과 방향이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사무국은 앞으로 작업내용의 선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의견과 방안을 회원국들로부터 받아 이를 논의하기로 했다. 또한 12월에 열리는 제 13차 JWP 회의에서 JWP의 위임에 관해 결정하기로 했다.

4. 평가와 관찰

많은 회원국들은 AEIs 개발, 농업환경정책의 수립을 위한 기준 등 지금까지 JWP가 추진한 작업이 국내정책 개발에 유용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에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주요 수출국들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강조와 여러 가지 지표 및 참조수준 설정에 불만을 표시했다. 이는 지금의 JWP 작업이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뒷받침하고 이를 통해 농업보호를 지키는 논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란 점에 강한 경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수출국들은 적용 가능성과 실효성 측면에서 지역 특정한 요소를 지나치게 강조하거나 지표의 선정기준이 엄격하지 않음에 따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사무국은 잠재 대상지표의 엄격한 선정기준을 설정하면서 지표 개발 작업을 지속해 나아가고, 많은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하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향으로 JWP 작업과 관련 보고서 작성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송수 songsoo@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동향—2000년 상반기—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시장은 세계 최대의 규모이다. 1999년 당시, 수입액은 7조 580억 엔(621억 달러), 수출액은 3,394억 엔(30억 달러)이다. 일본의 농산물시장은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시장인 동시에 수입시장이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7조 엔에 달하는 일본 농림수산물시장의 점유율은 미국이 27.3%로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중국(10.9%), 캐나다(6.8%), 오스트레일리아(6.4%), 타이(4.5%), 인도네시아(4.5%)이며, 한국은 3.5%로서 7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수출시장으로는 미국(21.2%), 홍콩(18.0%), 대만(16.8%)에 이어 한국은 4위이며 점유율은 8.9%이다. 2000년 상반기,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동향을 살펴본다.

1. 농림수산물의 무역액 감소

2000년도 상반기 일본의 농림수산물 무역은 전년 동기에 비하여 감소하고 있다. 국가 전체는 수입이 13.7%, 수출이 8.9% 증가하였지만 농림수산물의 경우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3.9%, 수출액은 7.8%나 감소하고 있다. 농림수산물의 수입액은 엔기준으로는 1997년을 피크로 3년 연속 감소하고 있다. 2000년 상반기의 수입액은 3조 4,386억 엔에 달하고 있으나, 반면에 수출액은 1,553억 엔으로서 3조 2,833억 엔의 무역적자를 발생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물 수입액 중 농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5.4% 감소한 1조 9,901억 엔, 임산물은 2.1% 감소한 6,208억 엔, 수산물은 1.4% 감소한 8,278억 엔으로서, 특히 농산물 수입액의 감소가 현저하다.

표 1 농림수산물 수출입 금액(2000년 상반기)

단위 : 억엔, %

구분	2000년 (상반기)	전년대비 증감률	1999년	1999년	
			(상반기)	(합 계)	
수입 (CIF)	총액(A)	193,411	13.7	170,130	352,680
	농림수산물계(B)	34,386	△ 3.9	35,775	70,591
	농산물	19,901	△ 5.4	21,045	40,933
	임산물	6,208	△ 2.1	6,338	12,264
	수산물	8,278	△ 1.4	8,392	17,395
	B/A(%)	17.8	-	21.0	20.0
수출 (FOB)	총액(C)	250,727	8.9	230,210	475,476
	농림수산물계(D)	1,553	△ 7.8	1,685	3,394
	농산물	809	△ 13.6	936	1,891
	임산물	44	△ 2.3	45	89
	수산물	701	△ 0.5	704	1,414
	D/C(%)	0.6	-	0.7	0.7
무역수지(C-A)		57,316	-	60,080	122,795
농림수산물(D-B)		△32,833	-	△34,090	△67,197

주 : 무역수지의 △표시는 수입초과임.

2. 농림수산물의 수입동향

2.1. 농산물

농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5.4% 감소한 1조 9901억엔이다(달러 기준으로는 5.2% 증가). 주요 품목별로 보면, 첫째 곡물 등을 보면, 대두의 수입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옥수수과 소맥은 감소하고 있다. 금액은 환율이 전년 동기에 비해 엔고 현상의 영향으로 3품목 모두 감소하였다.

둘째, 육류를 보면 쇠고기와 돼지고기는 수량과 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닭고기는 수량은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가격이 대폭 하락하여 금액도 대폭 감소하였다. 1999년도 돼지고기 가격은 13.6%나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입수량은 20% 정도 증가하였다.

셋째, 신선채소는 국내산 일부 품목이 기후불량으로 인해 출하가 적어졌기 때문에 수입 수량이 증가하였다. 신선채소는 1999년에도 가격하락으로 수량은 18.1%로 대폭 증가한 바 있으며, 2000년 상반기에도 국제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인하여 수량은 12.5%나 증가하고 있다.

넷째, 신선·건조 과실을 살펴보면, 바나나가 전년이 이에 계속 증가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량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표 2>에서와 같이 신선·건조 과실의 경우는 수입금액은 감소하였지만 수량은 14.8%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

농산물 수입을 금액으로 보면, 돼지고기, 담배, 쇠고기, 옥수수, 알코올 음료, 대두, 소맥, 신선채소 등의 순이며, 특히 신선채소, 돼지고기, 알코올 음료 등이 신장률이 현저하다.

2.2. 임산물

임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2.1% 감소한 6,208억 엔이다(달러 기준으로는 9.0% 증가). 이것을 품목별로 보면, 제재목은 수량·금액 모두 증가하였고, 원목·합판은 수량·금액 모두 감소하였다. 칩은 수량은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감소하였다.

표 2 주요 농산물의 수입수량과 금액(2000년 상반기)

품 목	수량(천톤)	전년동기대비		금액(억엔)	전년동기대비	
		증	감 율(%)		증	감 율(%)
농 산 물	-	-	-	19,901	△	5.4
옥 수 수	8,039	△	3.9	1,022	△	9.8
대 두	2,517		2.7	704	△	7.2
수 맥	2,990	△	5.9	563	△	16.6
쇠 고 기	346		3.2	1,381		0.8
돼지고기	325		5.7	1,742		3.8
닭 고 기	275		4.9	441	△	19.7
신선채소	470		12.5	463	△	6.1
신선·건조과실	1,071		14.8	1,111	△	2.3
담 배	89		0.0	1,631		10.4
알코올음료(천kl)	223		5.4	882	△	9.7
커피콩	193		1.2	461	△	15.1

자료 : 농림수산성

표 3 주요 임산물의 수입수량과 금액(2000년 상반기)

품 목	수량(천m³)	전년동기대비		금액(억엔)	전년동기대비	
		증	감 율(%)		증	감 율(%)
임 산 물	-	-	-	6,208	△	2.1
제재목	5,400		12.5	1,985		9.2
원 목	8,425	△	2.7	1,325	△	8.5
합판(천m²)	306,631	△	4.7	899	△	16.4
칩(천톤)	7,197		7.6	1,035	△	6.6

자료 : 농림수산성

2.3. 수산물

수산물 수입액은 전년 동기에 비해 1.4% 감소한 8,278억엔이다(달러 기준으로는 9.7% 증가). 품목별로 보면, 새우·삼치류, 뱀장어(조제품) 및 연어·송어는 수량·금액 모두 증가하였다. 그러나 게는 수량·금액 모두 상당히 감소하였다.

2.4.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입국

농림수산물의 수입국별 금액을 보면, 미국이 가장 많고 전체의 28.0%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농산물은 미국, 임산물은 캐나다, 수산물은 중국이 각각 수입금액이 1위이다.

3. 일본 농산물시장에서 한국의 위치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액에 차지하는 한국의 비중은 비교적 높은 편이다. 농림수산물 전체로는 미국이 28.0%로서 1위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중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타이, 인도네시아, 한국 등의 순서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에 이어서 2000년 상반기에도 7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2.9%로서 99년 상반기 점유율 3.1%보다 다소 감소하고 있다.

농림수산물 중 농산물은 순위는 10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점유율은 99년 상반기 2.4%(9위)에 비해 금액면에서 23.5%나 감소한 1.9%로서 고전하고 있다. 한편 수산물은 중국, 미국, 러시아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금액면에서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표 4 주요 수산물의 수입수량과 금액(2000년 상반기)

품 목 명	수량(천톤)	금액(억엔)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전년동기대비 증 감 률(%)
수 산 물	-	-	8,278	△ 1.4
새우 (활어, 신선 냉장, 냉동)	119	3.5	1,396	5.1
가다랭이·삼치류 (신선, 냉장, 냉동)	196	21.9	1,033	1.6
뱀장어 (조제품)	45	40.5	537	8.3
연어·송어 (신선, 냉장, 냉동)	110	5.1	613	3.2
계 (활어, 신선, 냉장, 냉동)	50	△ 12.2	443	△ 9.2

자료 : 농림수산성

표 5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입국(2000년 상반기)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농림수산물계	미국 (28.0)	중국 (11.9)	캐나다 (7.0)	호주 (6.1)	태국 (4.3)
농산물	미국 (39.4)	중국 (11.2)	호주 (7.9)	캐나다 (5.4)	태국 (4.5)
임산물	캐나다 (17.6)	미국 (16.9)	인도네시아 (12.3)	말레이시아 (11.3)	중국 (7.7)
수산물	중국 (16.8)	미국 (9.0)	러시아 (7.5)	한국 (7.3)	칠레 (6.9)

자료 : 농림수산성

주 : ()내는 수입금액의 구성비율임.

표 6 농림수산물 수입국 순위(2000년 상반기)

순위 (2000년)	순위 (1999년)	국명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
1	1	미국	963,456	28.0	△ 4.5
2	2	중국	409,577	11.9	3.3
3	3	캐나다	240,259	7.0	2.3
4	4	호주	209,900	6.1	△ 3.3
5	6	태국	148,408	4.3	△ 7.2
6	5	인도네시아	143,720	4.2	△ 11.1
7	7	한국	100,723	2.9	△ 10.6
8	8	러시아	98,570	2.9	△ 11.7
9	9	말레이시아	90,632	2.6	△ 11.1
10	10	칠레	88,465	2.6	4.1
농림수산물 합계			3,438,640	100.0	△ 3.9

우리나라의 주력 품목에 대하여 살펴보면, 먼저 돼지고기는 99년 13.4%(4위)에서 구제역의 영향으로 2000년 상반기에는 5.2%로 반감하였지만 여전히 일본 돈육시장에서 덴마크(32.9%), 미국(29.1), 캐나다(15.4), 멕시코(5.9)에 이어서 5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신선 채소는 8.4%로서 중국(27.0%), 미국(23.0%), 뉴질랜드(18.7%)에 이어서 4위를 차지하고 있다. 수량, 금액 모두 99년에 비해 증가하고 있으나, 순위는 99년의 3위(10.4%)에서 4위로 떨어졌다.

셋째, 알코올 음료는 2000년 상반기 6.6%로서 프랑스(40.1%), 영국(17.2%), 미국(11.1%)에 이어서 4위를 유지하고 있다. 전년의 4.3%에 비해 수량면에서 2배 정도의 신장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수산물은 가다랭이·참치류가 대만(29.4%)에 이어 2위(14.8%), 명란이 5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

표 7 농산물 수입국 순위(2000년 상반기)

순위 (2000년)	순위 (1999년)	국명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
1	1	미국	783,772	39.4	△ 3.2
2	2	중국	223,117	11.2	2.0
3	3	호주	156,885	7.9	△ 5.5
4	4	캐나다	106,901	5.4	△ 4.2
5	5	태국	88,915	4.5	△ 12.0
6	7	덴마크	68,042	3.4	7.5
7	6	프랑스	61,472	3.1	△ 6.3
8	8	뉴질랜드	46,249	2.3	△ 9.4
9	10	브라질	38,635	1.9	△ 8.7
10	9	한국	38,420	1.9	△ 23.5
농산물 합계			1,990,085	100.0	△ 5.4

표 8 농림수산물 수출국 순위(2000년 상반기)

순위 (2000년)	순위 (1999년)	국명	수입액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100만엔	%	%
1	1	미국	32,106	20.7	△ 8.8
2	3	홍콩	28,388	18.3	3.6
3	2	대만	22,133	14.3	△ 23.1
4	4	한국	17,139	11.0	25.5
5	6	중국	9,295	6.0	37.1
6	7	태국	5,097	3.3	△ 15.0
7	9	싱가포르	4,242	2.7	△ 2.7
8	8	독일	3,208	2.1	△ 28.7
9	10	스위스	3,140	2.0	△ 16.4
10	13	호주	3,046	2.0	49.0
농림수산물 합계			155,302	100.0	△ 7.8

마지막으로 일본의 수출 동향을 보면, 2000년 상반기 농림수산물 수출액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그 중 농산물은 전년 동기에 비해 13.6% 감소한 809억엔, 임산물은 2.3% 감소한 44억엔, 수산물은 0.5% 감소한 701억 엔이다. 이것을 품목별로 보면, 진주, 가다랭이·참치류 및 알코올 음료는 수량·금액 모두 감소하고 있다. 담배는 수량은 증가하지만 금액은 대폭 감소하고 있다.

일본의 농림수산물의 수출국은 미국이 1위이며, 전체 수출액의 20.7%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이 홍콩(18.3%), 대만(14.3%), 한국(11.0%), 중국(6.0%) 순이다. 한국은 일본 수출시장의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99년 상반기의 8.1%에 비하면 점유율이 늘어나고 있다. 한국은 일본 농림수산물의 주요 수출국이 되고 있다.

자료 : 일본 농림수산성 「농림수산물수출입개황」 (2000. 8. 17)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국제농업연구실)

중국의 농산물 무역동향

중국은 개혁과 개방 정책을 표방한지 20년 만에 GDP 규모로 볼 때 세계 7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움했다. 경제발전과 더불어 농업도 큰 성과를 거두었는데, 무엇보다 식량생산에서 20년간 60배 이상의 증산을 달성한 것이 가장 두드러진다. 그 결과 1980년대 이래 농산물 교역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왔으며, 무역수지도 대부분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대 중국 전체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해 왔으나 농림축산물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규모는 차츰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고 한·중간 농산물 교역은 더욱 증대될 것이므로 한·중간 농산물 무역문제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할 소지도 더 많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을 마련하고, 아울러 양국간 분쟁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1. 중국의 농산물 무역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50년 동안(1949-98) 중국경제는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을 이룩하여 현재 GDP 세계 7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되었다. 98년 중국의 GDP는 9,589.9억 달러로 세계 전체 GDP의 3.4%를 차지한다. 그리고 98년 기준 교역총액은 3,239억 달러로 세계 전체 교역액의 3.1%를 차지하며, 이중 수출이 1,838억 달러이고 수입이 1,402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436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특히 90년대 들어서는 9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고, 그 규모도 차츰 증가하는 추세이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 설명에 앞서 우선 주요 농산물 생산 현황을 살펴 보면, 곡물을 비롯하여 유채, 면화, 땅콩, 찻잎, 육류는 세계 총생산량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 대두, 과일, 양모 등도 약 10%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표 1 중국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및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1998)
단위 : 만톤

	세계	중국	비율(%)
곡 물	205437	45625	22.2
대 두	15833	1515	9.6
유 채	3357	830	24.7
면 화	1826	450	24.6
땅 콩	3097	1189	38.4
황 마	360	25	6.9
사탕수수	125227	8344	6.7
차 잎	296	67	22.6
육 류	21620	5724	26.5
과 일	50020	5453	10.9
사탕무우	25886	1447	5.6
담 배 잎	706	236	33.4
우 유	46635	0	-
양 모	244	31	12.7

중국은 인구가 12억 5천만으로 세계 인구의 24.3%를 차지하는 인구대국이다. 따라서 중국농산물의 주요시장은 국내시장이다. 이는 두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데, 첫째, 국내수요는 주로 국내 구매에 의존하며, 둘째, 농산물의 주요 판로 역시 국내에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정 품목, 지역, 연도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영향력을 나타낸다.

개혁·개방 정책 도입에 따라 80년대 이래 농산물 수출입 총액이 계속 증가하여 왔다. 중국의 농산물 무역의 주요 특징은 첫째, 농산물 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가 국가 총수출과 수입의 증가 속도에 비해 낮다. 80년부터 98년까지 18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5.6%에 이르나, 농산물 수출은 3.3배 증가하여 연평균 2.9%의 성장률을 보였다. 한편 총수입액은 이 기간에 7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은 4.7%를 보인 반면, 농산물 수입은 약 2배 증가하여 연평균 성장률이 1.6%에 불과하였다.

둘째, 농산물 교역액이 전체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전체교역중 농산물 교역액 비중을 살펴보면, 수출의 경우 80년에 농산물 수출이 전체수출의 24.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95년에는 10.6%, 그리고 98년에는 8.0%까지 감소하였다. 수입의 경우 80년 농산물 수입이 전체수입의 31.1%를 차지하였으나 차츰 하락하여 1995년에는 10%이하로 줄어들었고, 98년에는 8.5%로 감소하였다.

한편 무역수지 측면에서 보면, 80년대에는 82년과 83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90년부터 흑자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농산물 무역은 몇 개 연도 외에는 대체로 매년 25억 달러 정도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의 주요 수출농산물은 쌀, 옥수수, 대두 등 식량과, 땅콩, 오렌지, 사과 등 과일류, 쇠고기, 돼지고기, 냉동닭 등이 있다. 그리고 주요 수입농산물은 식용유, 기타 식물유, 밀, 밀가루, 설탕, 배합동물사료 및 쌀, 옥수수 등이 있다. 금액면에서 가장 많은 품목은 수출의 경우 옥수수와 쌀이며, 수입은 식용유와 밀이다.

표 2 중국의 농산물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연도	총수출	농산물 수출		총수입	농산물 수입		무역수지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전체	농산물
1980	18,119	4,370	24.1	20,017	6,220	31.1	-1,898	-1850
1985	27,350	6,220	22.7	42,252	4,290	10.2	-14,902	1930
1990	62,091	9,920	16.0	53,345	7,240	13.6	8,746	2680
1995	148,780	15,740	10.6	132,084	12,930	9.8	16,696	2810
1997	182,790	14,850	8.1	142,370	12,310	8.6	40,420	2540
1998	183,760	14,320	8.0	140,170	11,880	8.5	43,590	2440

2. 농업자재 무역동향

중국은 농기자재 중 트랙터와 농약은 순수출국이나 비료는 순수입국 입장이다. 특히 비료는 최근 3년간 매년 30억 달러 이상을 수입하여 왔으며 현재 트랙터를 비롯한 농기계의 보급률이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수출보다는 수입이 더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급동향을 살펴보면, 화학비료와 농약 모두 생산량과 사용량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화학비료의 경우 최근 몇 년간 연평균 생산량은 2,500~2,900만 톤이고 사용량은 3,600~4,000만 톤이며 매년 약 1,600~2,000만 톤(실증량) 가량을 수입하고 있다. 농약도 사용량의 증가에 따라 수입량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한중간 교류협력 강화 분야로 농산물 및 농기자재 교역 증대를 들 수 있고, 농기자재의 공동생산을 위한 합작투자도 실현 가능성이 높은 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표 3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급현황

단위 : 만톤

연도	화학비료			농약		
	생산량 (성분량)	사용량 (성분량)	수입량 (실증량)	생산량	사용량	수입량
1981	1239	1335	555	48.4		1.7
1985	1322	1776	761	21.1		1.6
1991	1980	2805	1818	25.5	76.1	3.2
1995	2548	3594	1991	41.7	108.7	3.4
1996	2809	3828	1857	44.8	114.1	3.2
1997	2911	3981	1649	55.2	119.5	4.9

표4 중국의 주요 농기자재 수출입 실적

단위 : 만\$

	연도	트랙터	비료		농약
			천연비료	화학비료	
수입	1995	58,969	36,572	383,985	31,932
	1996	47,874	47,870	366,206	29,643
	1997	43,392	29,778	310,668	32,124
수출	1995	70,679	42,635	14,646	28,184
	1996	60,210	586	20,326	32,117
	1997	58,447	374	22,004	35,957
무역수지	1995	11,710	6,063	-369,339	-3,748
	1996	12,336	-47,284	-345,880	2,474
	1997	15,055	-29,404	-288,664	3,833

3. 한중간 농산물 및 농업자재의 교역전망

92년 한·중 수교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교역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우리나라는 중국과의 교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달성하고 있으므로 중국이야말로 중요한 교역대상국이다. 중국은 한국의 3대 무역국이고 한국은 중국의 5대 무역국으로서, 99년 한국의 대 중국 교역액은 우리나라 총 교역액의 8.6%에 해당하는 225억 5,200만 달러이다. 이중 수출총액은 136억 8,500만 달러인데 농림산물은 9,050만 달러로 0.7%에 불과하다. 반면에 수입 총액은 88억 6,700만 달러, 농림산물이 7억 8,030만 달러로 8.8%를 차지하고 있다.

즉 1993년 이후 우리나라의 대 중국 총 무역수지는 계속 흑자를 유지하여 왔으나 농림축산물에서는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99년 대 중국 전체 무역수지는 48억 1,800만 달러의 흑자이나 농림산물 무역수지는 6억 8,980만 달러의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UR 이후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 개방이 더욱 확대됨과 때를 같이하여 중국산 농산물의 수입이 급증한데 기인된다.

우리나라가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품목은 땅콩, 참깨, 들깨 등 유지작물, 쌀, 옥수수 등 곡물, 녹두, 팥 등 두류, 고추, 마늘, 파, 양파 등 양념채소류, 사료용 박류, 고사리, 더덕, 한약재 등이며, 수출 품목에는 자당, 담배, 밤, 껌, 홍삼, 목재(합판), 라면 등 가공농산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농산물은 가격이 저렴한 저품질 농산물이 대부분이어서 국내 농산물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다. 또한 종류가 다양하고 품목에 따라서는 수량도 적지 않아 국내 농산물 가격을 떨어뜨리고 나아가 국내 생산농가에 손해를 입히고 있다.

표 5 한국의 대 중국 교역현황

단위 : 백만\$

		1995	1996	1997	1998(A)	1999(B)	증감률 A/B(%)
수출	국가전체	9,144	11,377	13,572	11,944	13,658	12.0
	농림산물	95.3	88.0	85.7	115.4	90.5	34.7
	농산물	44.9	27.0	47.0	39.5	37.9	△16.0
	축산물	1.1	0.7	1.5	40.0	3.1	2.1
	임산물	49.3	60.3	37.2	35.9	49.5	△3.5
수입	국가전체	7,401	8,539	10,117	6,484	8,867	△35.9
	농림산물	637.2	818.6	1,275.1	774.3	780.3	△39.3
	농산물	412.5	531.6	934.9	623.9	551.6	△33.3
	축산물	35.2	40.8	46.4	11.8	15.1	△74.6
	임산물	189.5	246.2	293.8	138.6	213.7	△52.8
무역 수지	국가전체	1,743	2,838	3455	5460	4,818	58.0
	농림산물	△541.9	△730.6	△1189.4	△658.9	-689.8	44.6

그러나 한·중 양국간의 농산물 교역 증대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중국의 WTO 가입이 실현되고 나면 교역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우리나라로서는 대 중국 농산물 수출 증대 방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를 위해 양국이 상호보완적인 품목에 대하여 상대국 농산물 수입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매년 한중 양국은 상호간 농업발전과 농업 분야 협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정부 차원 한·중농수산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사안은 이 위원회를 통해서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 한·중간 농산물 무역문제로 마찰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류협력을 강화해 나아가야 하며,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나면 차기 농산물 협상 등 국제무대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사항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길 cgchunf@krei.re.kr 북한농업연구센터)

세계농업뉴스 제1호 (2000. 9)

등 록 제5-10호 (1979. 5. 25)

인 쇄 2000년 9월

발 행 2000년 9월

발행인 강정일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전화 02-3299-4224 팩시밀리 02-965-6950

<http://www.krei.re.kr>

인쇄처 경희정보인쇄(주) 02-2263-7534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 이 연구는 우리 연구원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